

**F. Schubert의 Piano Sonata
A Minor Op.42 D.845 연구**

이 영 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채 정 아

이영민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F. Schubert의 Piano Sonata
A Minor Op,42 D.845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채 정 아

인 준 서

체정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슈베르트 (Franz Peter Schubert, 1797-1828)는 초기 낭만파 작곡가로 짧은 생애동안 성악곡과 기악곡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작품을 남겼다. 그는 600곡에 달하는 예술가곡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피아노 작품들 역시 음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작품 중 특히 피아노 소나타는 진지하고 구축적인 슈베르트의 면모를 시사하는 영역이다. 완성된 소나타를 포함한 총 20여곡의 소나타는 고전시대 소나타 형식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악장 전개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율 서법과 연속적인 전조 등으로 화성의 변화를 다양하게냄으로서 낭만적인 양식을 보인다.

본 논문은 슈베르트의 Piano Sonata A Minor, D.845를 분석함으로써 슈베르트 피아노 음악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1825년에 작곡되었으며 'Premiere Grand Sonata'라는 명칭으로 출판된, 슈베르트 생전에 출판된 3개의 소나타 중 하나이다. 제 1악장 소나타 형식, 제 2악장 변주곡 형식, 제 3악장 스케르쑈, 제 4악장 확대된 론도 형식으로 쓰인 이 소나타는 규모와 형식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한 작품으로 낭만적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먼저 미완성곡을 포함한 20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초기·중기·말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또한 본론에서는 <피아노 소나타 A Minor D.845>의 작곡 배경을 살피고, 각 악장에서 나타나는 형식, 구조, 리듬, 조성 등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슈베르트 소나타가 갖는 음악사적 의의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개관	3
III.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A Minor, D.845>의 분석	12
1. 작곡배경	12
2. 작품 분석	13
1) 제 1악장	14
2) 제 2악장	28
3) 제 3악장	35
4) 제 4악장	41
IV. 결론	50

참고 문헌

ABSTRACT

I. 서론

19세기 피아노는 외부구조와 세부장치의 기능적 발달로 보다 풍부한 음향과 다양한 음색을 구사하는 이상적인 악기로 대두되었다. 특히 금속 프레임을 현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이중이탈장치(double escapement action)의 도입은 빠른 음의 반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교적인 연주의 범의를 크게 확장시켰다.

이 시기의 피아노 음악 작곡가들은 특수한 분위기나 표제적인 성격을 지닌 성격소품(character piece)을 자신의 영감을 표현하는 주된 수단으로 삼았다. 바가텔(bagatelle), 즉흥곡(impromptus), 악흥의 한때(moment musical) 등 다양한 성격 소품을 작곡하였으며,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과 같이 이를 연합한 표제적 모음곡을 작곡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작곡가들은 피아노 소나타도 계속 작곡하였고 소나타는 규모나 형식에 있어 크게 확대되었다.

슈베르트는 19세기의 어떤 작곡가보다도 전 생애에 걸쳐 꾸준하게 피아노 소나타에 관심을 보였던 작곡가이다. 그는 다수의 춤곡을 비롯하여 환상곡(fantasy), 즉흥곡(impromptus) 등의 성격적 소품과 피아노 듀오(duo)등을 작곡하였고 중요한 독주곡을 60곡 이상 완성하였다. 미완성과 스케치도 적지 않은데 많은 경우가 소나타나 소나타 악장으로 추측되는 여러 개의 단일 악장 작품들이다.

피아노 소나타는 미완성인 작품을 포함하여 총 23곡을 착수하였다. 슈베르트의 소나타는 모두 고전적인 형식적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곡에서 명

성을 얻은 작곡가답게 그의 피아노 소나타에도 가곡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슈베르트의 소나타의 주제는 상당히 가곡적이며 전개부도 주제의 변형과 발전이라기보다는 전조 등에 의한 가요의 혼합과 같은 느낌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1825년에 작곡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 Minor, D.845>의 악곡 분석을 통하여 그의 피아노 소나타의 특징을 고찰해 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고전성과 낭만성을 연구해보고 이 작품이 음악사적으로 갖는 의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배경 연구로서 슈베르트 소나타 전곡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뉘어 그 변천과정을 먼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고 각 악장별 형식과 조성, 선율, 리듬 등 주요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II.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개관

19세기에는 고전주의 기법들이 낭만적 어법으로 전환된 시기로, 고전주의의 특징인 객관적인 서법들이 서서히 붕괴되면서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양식이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낭만음악 양식은 형식 및 구조적 측면보다는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인간의 감정과 주관적인 가능성을 강조하는 예술이었다. 따라서 베토벤 이후의 19세기 피아노 음악은 낭만적 이상을 표현하기 용이한 다른 새로운 장르 즉, 성격 소품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고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여러 곡의 소나타를 작곡하지 않았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피아노 소나타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는데 그는 31년이라는 짧은 생애동안 어떤 작곡가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여러곡의 피아노 작품을 남기면서, 다른 낭만시대 작곡가들과는 달리 완성된 11곡의 소나타를 비롯하여 미완성을 포함한 총 23곡의 소나타를 작곡하였다. 이 작품들은 모두 고전적인 형식의 바탕 위에 낭만적 서정성을 가미한 슈베르트 특유의 양식을 드러내는 낭만 피아노 소나타이다.

그러나 <4개의 즉흥곡, D.935> (1827년)와 같이 소나타라고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소나타로 구상했었으리라 추측되는 작품도 있으며, 슈베르트는 적어도 25곡 이상의 소나타 작곡에 착수하였다고 추측된다.¹⁾

다음의 <표 1>은 슈베르트의 주요 피아노 소나타 23곡을 소개한 것이다.

1) 음악 지우사 편,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 슈베르트」 (서울: 음악세계, 2001), p.166.

<표 1>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²⁾

	도이취번호(작품 번호)	조 성	작곡 연대	비 고
초기	D.157	E	1815.2	원조에서의 피날레가 없다
	D.279	C	1815.9	
	D.459	E	1816.8	
	D.537(Op.164)	a	1817.3	
	D.557	A ^b	1817.5	
	D.566	e	1817.6	
	D.567	D ^b	1817.6	3악장 17마디가 완성이었으나 분실
	D.568(Op.122)	E ^b	1817.6	D.567의 개정판 Troisieme grand Sonata
	D.571(Op.147)	f [#]	1817.7	
	D.575	B	1818.8	
	D.613	C	1818.4	1.3악장이 미완성
	D.625	f	1818.9	
	D.655	c [#]	1819.4	
	D.664(Op.120)	A	1819/25?	
중기	D.769	e	1823	
	D.784(Op.143)	a	1823.2	Grand Sonata로 출판
	D.840	C	1825.4	Relique Sonata
	D.845(Op.42)	a	1825.5	Premiere Grand Sonata로 출판
	D.850(Op.53)	D	1825.8	Second Grand Sonata
	D.894(Op.78)	G	1825.10	Fantasia, Andante, Menuetto and Allegretto
후기	D.958	c	1828.9	Progrosse
	D.959	A	1828.9	
	D.960	B ^b	1828.9	

2) W. S. Newman, *The Sonata since Beethoven* (New York : W.W Norton & Co., 1983), p.204.

슈베르트 소나타는 작품번호(Opus number)와 도이취(O.E. Deutch;1883-1967)가 정리한 도이취 번호(Deutch number; 축약 D.로 씀)로 통용된다. 도이취는 저명한 음악학자로서 특히 슈베르트의 연구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1951년에 슈베르트의 전 작품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이 분야에 크게 공헌 하였다. 도이취 번호는 미완성을 포함한 모든 소나타에 매겨있고, 작품 번호는 1826년에 작곡된 G major 소나타까지 8개의 소나타에 매겨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Opus number 보다 Deutch number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1815년에서 1819년까지 전체 소나타의 반이 넘는 15곡이 작곡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중에서 완성된 것은 5곡에 불과하다. 완성된 11곡 가운데 3악장의 소나타는 3곡, 4악장의 소나타는 8곡이다. 보통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슈베르트의 소나타 곡집에는 완성된 10개의 소나타와 <환상 소나타 G Major D.894>가 수록되어 있다(표 1).

다음은 완성되어 출판된 11개의 소나타를 초기, 중기, 말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³⁾ 각 시기마다 나타나는 슈베르트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초기 소나타(1815-1819)

슈베르트는 1815년경부터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기 시작하여 181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작곡을 했는데 1817년부터 3년 동안에는 무려 8곡의 소나타가 작곡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가곡은 단 한곡밖에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얼마나 피아노 소나타 작곡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다.⁴⁾ 이 시기의 소나타는 밝고 명랑하다. 이러한 이유는 그가 싫어하던 교사직을 그만두고 친구의 집에 기거하면서 원하던 작곡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⁵⁾. 그는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세 곡의 소나타 D.157 (E Major), D.279 (C Major), D.459 (E Major)를 썼다. 특히 D.459의 세 번째 악장 Adagio는 상당한 수준으로 단독으로 연주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 F.E. Kirby, 「건반음악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다리,1997), p.240.

4) 박휘암, “F. schubert 피아노 소나타 A Major D. 959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13.

5) 김혜령,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의 피아노 소나타 C 단조 D. 958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4.

슈베르트의 초기 소나타는 고전시대의 형식적 틀 안에서 그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는 않으나 건반악기에 적합한 긴밀한 구성감을 보여준다. 또한 기쁘고 밝은 느낌을 주며 매우 서정적이면서 아름다운데 이러한 초기의 소나타에서 표현된 강한 서정성은 피아노가 가진 음향적 가능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⁶⁾. 초기 소나타들은 대부분 고전 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D.537(A Minor)과 D.664(A Major)는 3악장으로, D.568(E^b Major), D.575(E Major)는 4악장으로 되어있다.

슈베르트의 초기 소나타의 악장 배열과 빠르기, 형식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초기 소나타의 개관

D.번호	조성	작곡년도	악장	빠르기	형식
D.537	A Minor	1817년	1	Allergo ma non troppo	소나타
			2	Allegretto quasi Andantino	론도
			3	Allegro vivace	소나타
D.568	E ^b Major	1817년	1	Allegro Moderato	소나타
			2	Andante Molto	론도
			3	Menuettp Allegretto	미뉴에트
			4	Allegro Moderato	소나타
D.575	E Major	1817년	1	Allergo ma non troppo	소나타
			2	Andante	세도막
			3	Scherzo	스케르쪼
			4	Allegro guisto	소나타
D.664	A Major	1819년	1	Allegro Moderato	소나타
			2	Andante	세도막
			3	Allegro	소나타

이 기간에 쓰여진 소나타는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템포 지시는 중도적인 성격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제 1악장은 Allegro가 아닌 Allegro Moderato(D.568) 혹은 Allergo ma non troppo(D.537)를 사용하며 느린 악장도 Adagio가 아닌 Adante(D.575) 쪽으로 기울고 있다.

6) 이연화, 「피아노 음악강좌(낭만편)」 (서울: 음악춘추사, 1992), p.126.

이와 같이 초기의 소나타는 고전주의 소나타 형식을 기초로 하여 슈베르트 특유의 기법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제 1악장에서는 선율의 서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빠른 템포를 피하고 중도적인 빠르기를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제 2악장은 제 1악장의 노래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너무 느린 템포보다는 적당히 느린 Andante 속도를 선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⁷⁾

또 다른 특징으로 각 악장의 서두에서는 대부분 옥타브 중복 진행이 많으며, 간단한 화음 진행이나 선율이 강조되며 서정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D. 568의 제 1악장에서 슈베르트는 빼어난 가곡 작곡가답게 고전주의적 주제 동기 발전을 통한 진행보다는 서정적인 주제의 활용을 통한 곡의 진행을 보여주는데 특히 다양한 선율에 상행 아르페지오 모티브로 통일성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발전부의 선율은 제 1주제를 정교하게 압축시킨 것으로서 슈베르트가 주제 전개 가능성보다는 선율 자체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높았음을 증명하며 주제 중 한 프레이즈를 선택하여 끊임없이 반복 진행시키는 슈베르트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조성의 선택에 있어서는 고전주의적 전통적인 조성에서 벗어나 여러 조를 사용하여 형식적 긴장감을 이완시켰다. 또한 장조 소나타와 단조 소나타를 서로 다르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는데, 장조 소나타의 제시부는 일상적으로 으뜸조-팔림조(I-V)로 쓰이거나 세 개의 조(I-b III-V)를 갖고 있는 반면, 단조의 소나타에서는 으뜸조-나란한조 관계를 선호하는 자유로운 경향을 보여준다⁸⁾.

7) W. Newman *The Sonata since Beethoven*, p.208.

8) 오정희, “Franz Schubert Piano Sonata D.664 A Major의 연구분석”(목원대학교 석

또 다른 특징은 초기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은 모두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주로 하나의 선율 소재를 발전시켜서 진행하며 악장을 마무리할 때에도 선율의 반복음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의 소나타들은 고전주의 소나타형식을 기초로 하여 중도적인 템포, 서정적인 주제의 활용, 조성의 다양한 변화 등을 통하여 슈베르트 특유의 기법이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2) 중기 소나타(1823-1826)

중기 소나타는 초기 소나타를 작곡한지 4년 정도 지나서부터 작곡되었다. 중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총 4곡으로 이곡들은 1822년에 작곡된 <방랑자 환상곡 (Wanderer Fantasie), Op.15 D.760> 을 분기점으로 성숙한 시기에 접어든 소나타들이다.

1823년 슈베르트는 병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작곡된 <소나타 D.784>는 A Minor 로 된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의 작품이다. 이 후 그의 병이 호전된 뒤 이전보다 규모가 큰 소나타를 작곡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분석할 D.845(A Minor)를 비롯하여 D.850(D Minor), D.894(G Minor) 등은 슈베르트의 생전에 출판된 유일한 소나타로서 중요성을 갖는다⁹⁾.

사학위논문, 1997), p.12.

9) F.E. Kirby, *A Short History of Keyboard Music* (New York : The Free Press, 1966), p.243.

슈베르트 중기 소나타의 악장배열과 빠르기, 형식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표 3> 중기 소나타의 개관

D.번호	조성	작곡년도	악장	빠르기	형식
D.784	A Minor	1823	1	Allegro giusto	소나타
			2	Andante	가요
			3	Allegro vivace	론도
D.845	A Minor	1825	1	Moderato	소나타
			2	Andante con moto	변주곡
			3	Scherzo; Allegro ivace	스케르쪼
			4	Allegro vivace	론도
D.850	D Major	1825	1	Allegro vivace	소나타
			2	Con Molto	가요
			3	Scherzo; Allegro ivace	스케르쪼
			4	Allegro Moderato	론도
D.894	G Major	1826	1	Molto Moderato con Cantabile	소나타
			2	Andante	가요
			3	Menuetto; Allegro oderato	미뉴에트
			4	Allegro	작은론도

슈베르트의 중기 소나타는 초기에 비해 규모가 한층 확대 되었다. <표 3>을 보면 D.845부터 소나타는 4악장으로 작곡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규모나 길이에 있어서도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그가 이 시기에 출판한 3곡의 소나타에는 모두 제목이 붙었는데 D.845는 1826년 3월 비인에서 <Premiere Grand Sonata>로 출간되었고, D.850은 <Seconde Grand Sonata>로, D.894는 출판될 때 토비스 하슬링거 (Tobis Haslinger; 1787~1842)가 <Fantasie, Andante, Menuetto and

Allegretto>로 네 악장을 네 개의 소품으로 출판하였기 때문에 <Fantasy Sonata>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¹⁰⁾

중기 소나타에도 초기 소나타에서 나타나던 옥타브가 여전히 애호되고 있으며 코다(coda)에 비중을 둠에 따라 길이가 확장되었다. 또한 초기 소나타에서 쓰이던 I - b III - V 조성의 형태는 계속 사용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세 개의 조성인 I - b VI - V 조성이 D.784의 제 1악장 제시부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가 즐겨 사용하는 단조에서 장조로 이동하는 화성법이 자주 나타난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로 D.845의 제 1악장 끝부분에서 나타나듯 이 시기에는 주제의 선율이 계속적으로 ff 와 pp 를 사용하여 강약의 변화로 음색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긴장-이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휴지를 즐겨 사용한 것도 슈베르트만의 특징이다.

3) 말기 소나타(1828)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는 그가 세상을 떠난 1828년에 완성되었다. 이 해에 작곡된 세 곡의 소나타 D.958 (C Minor), D.959 (A Major), D.960 (B Major)는 모두가 엄청난 규모를 가지며 연주시간 40분 이상이 걸리는 대곡들로서 연주도 상당히 어렵고 좋은 연주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말기 소나타의 악장배열과 빠르기, 형식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10) 세광음악 출판사 편집부, 「명곡 해설전집: 제16권」 (서울:세광출판사, 1982), p.163.

<표 4> 말기 소나타의 개관

D.번호	조성	작곡년도	악장	빠르기	형식
D.958	C Minor	1828	1	Allegro	소나타
			2	adagio	론도
			3	Menuetto;Allegro	미뉴엣
			4	Allegro	소나타
D.959	A Major	1828	1	Allegro	소나타
			2	Andantino	세도막
			3	Scherzo; Allegro vivace	스케르쪼
			4	Allegretto	론도
D.960	B ^b Major	1828	1	Molto Moderato	소나타
			2	Andante Sostenuuto	가요
			3	Scherzo; Allegro vivace con delicatezza	스케르쪼
			4	Allegro	론도소나타

말기의 소나타 세 곡은 모두 4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 제 2악장은 2부분 혹은 3부분 형식, 제 3악장은 미뉴엣 혹은 스케르쪼, 제 4악장은 론도이다. 이 시기의 소나타들은 그 전의 소나타들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전조 기법이 다양해졌으며, 음악적으로 보다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규모가 확장된 악장은 주로 제 1, 4악장인데 특히 제 1악장에서는 지금까지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해오던 작곡 방식에 여러 가지 동기들을 서로 연합시키는 수법을 추가, 사용하였다. 또한 말기 소나타에서는 주제의 선율을 도와주는 반주부분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반주 부분 선율에서도 서정성이 흐름을 볼 수 있다.

전조에 있어서도 급격한 전조가 많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긴장은 적절

한 휴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하였다. 또한 반음계적 진행을 많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전조를 이루어냈고 이러한 수법은 뒤이은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Ⅲ. <피아노 소나타 A Minor, D.845>의 분석

1) 작곡 배경

슈베르트는 1823년에서 1826 사이에 총 4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완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소나타 A Minor, D.845>는 생전에 출판된 3개의 소나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이 소나타는 그 때까지 작곡된 소나타들 중에서 처음으로 주위의 호평을 받았으며, 1826년 3월 초 비엔나의 페나우어(Pennauer) 출판사에서 <Premiere Grand Sonata>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¹¹⁾.

당시 <일반음악신문> 페나우어는 이 소나타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그 논평은 다음과 같다.

“이 소나타가 훌륭하게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표현 기법에 있어 자유롭고 독창적이며 때로는 아주 대담하고 독특해서 판타지라고 불려도 괜찮을 듯하며, 이런 점에서 이는 베토벤의 가장 위대하고 자유스런 소나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듯하다.”¹²⁾

또한 이 소나타는 슈베르트가 베토벤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오스트리아의 Rudolf 대공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베토벤은 많은 작품을 대공에게 헌정한데 반하여 슈베르트가 귀족에게 헌정한 곡은 이 곡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¹³⁾

11) 세광음악 출판사 편집부, 「명곡해설전집:제 16권」 p.163에서 재인용.

12) 김경임, 「피아노 소나타」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5), P.216.

13) 김경임, 「피아노 소나타」 P.216에서 재인용.

특히 이 곡은 슈베르트가 작곡한 모든 소나타 중에서 유일하게 제 2악장에 변주곡을 갖고 있는데 그가 연주한 후에 양친으로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소나타의 변주곡은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도 웬지 잘 연주할 수 있었으며 나의 손 밑에서 건반이 노래하는 듯이 생각되었다고 찬사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

이렇듯 <피아노 소나타 A Minor, D.845>는 이전의 초기 소나타에 비할 때 그 규모와 형식면에 있어서 좀 더 발전된 작품이며, 당시 슈베르트에게 피아노 소나타 작곡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해 준 작품이다.

2) 작품 분석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 Minor, D.845>는 4악장 구성의 소나타로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 제 2악장은 변주곡 형식, 제 3악장은 트리오를 포함한 스케르췌, 제 4악장은 확대된 론도 형식이다(표 5).

14) 음악지우사편, 「명곡해설라이브러리: 슈베르트」 p. 191에서 재인용.

<표 5>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A Minor D.845의 악장별 개관

악장	형식	빠르기	조성	박자	총마디수
1	소나타	Moderato	a	2/2	311
2	변주곡	Andante, poco Mosso	C	3/8	181
3	스케르췌	Allegro vivace	a	3/4	316
4	론도	Allegro vivace	a	2/4	549

1) 제 1악장 (A Minor, 2/2박자, Moderato, 총 311 마디)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표 6).

<표 6> 제 1악장의 구조

형식	구조	마디	조성
제 시 부 (1-90)	제 1주제부	1-25	a
	경과구	26-39	a
	제 2주제부	40-62	C
	종결부	63-90	c
발 전 부 (91-150)	제 1부	91-104	c
	제 2부	105-119	d
	제 3부	120-150	f
재 현 부 (151-246)	제 1주제 재현	151-185	a
	경과구	186-199	a
	제 2주제 재현	200-246	A
코 다 (247-311)	전 악장의 종결부	247-311	a

(1) 제 시 부(mm.1-90)

제시부는 도입부 없이 바로 시작한다. 제 1주제 제시는 4마디의 전악구 ㉠와 6마디의 후악구 ㉡로 이루어지고, 이 두 개의 주요 모티브는 옥타브 선율과 화음으로, 하행진행과 상행진행으로, *pp* 와 *mf* 의 악상으로, 으뜸화음과 팔림화음으로 서로 간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부터 슈베르트의 특징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소나타의 주제를 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인 옥타브 진행이 이 제 1주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악보 1).

<악보 1> mm.1-10

The musical score for mm. 1-10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m. 1-5) is marked 'Moderato' and 'a tempo'. The melody in the treble clef starts on A4, moves down to G4, and then up to A4. The bass clef has a supporting accompaniment. Dynamics range from *pp* to *mf*. The second system (mm. 6-10) continues the melody and accompaniment, ending with a *cresc.* marking. Chords VII7 and V are indicated below the bass line. The score includes annotations such as '페달음' (pedal) and 'un poco ritard.'.

Mm.11-25는 제 1주제의 확보로서 당김음과 8분음표의 아르페지오 음형이 상성부에서 진행되며 E음이 지속적으로 강조된다(악보 2).

<악보 2> mm.11-19

경과구는 mm.25-39 로 ff로 시작한다. m.26의 모티브㉔이후 바로 나타나는 것이 제 1주제의 모티브㉕인데 이 두 모티브는 sf 와 p 로 대조되며, 옥타브 중복과 화음의 대조적인 구조로 제 1주제의 연관성을 볼 수 있다(악보 3).

<악보 3> mm.26-36

제 2주제는 mm. 40-62이다. 제 2주제는 경과구에서 나타난 모티브㉔와

제 1주제의 확보 부분에서 나타났던 8분음표 아르페지오 부분과 유사한 모티브④로 구성되었고 A Minor의 관계장조인 C Major로 시작한다. 제 2주제 역시 각각 4마디씩의 전악구와 후악구로 나뉘어지는데 후악구는 전악구가 2도 위에서 반복되는 형태를 보인다(악보 4).

<악보 4> mm.40-50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piano, measures 40-50. It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labeled '전악구' (Antecedent), contains two motifs: (c) and (d). Motif (c) is a four-measure phrase starting on C, and motif (d) is a four-measure phrase starting on D. The second system, labeled '후악구' (Consequent), shows motif (c) repeated starting on D.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like *fp*, *f*, *cresc.*, and *sf*. Chord symbols V_7 , VII_7/VI , and VII_7/V are written below the second system.

경과구의 모티브③가 상성부와 하성부에서 반진행 하며 모티브④가 I -V 로 반복하면서 제 2주제의 확대는 이루어진다. 다시 mm.55-58는 제 1주제의 제시부분처럼 2도 위에서 동형진행한다. 이 확대 부분은 p 와 ff 를 반복 하면서 진행하다가 *cresc.*되면서 m.60와 m.62에서 갑자기 휴지부를 사용하여 곡을 반전시키며 다음 악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악보 5).

<악보 5> mm.51-62

반진행

II VII⁷/II II

I V⁷/E^b 휴지부

b II: V 휴지부

종결부는 mm.63-90까지인데 특히 mm.63-71는 C Minor로 시작하며 pp로 제 1주제의 모티브 ①, ②를 사용한다. 이후 mm.71-76에서는 모티브①, ②를 더욱 강조하면서 깊고 풍부한 선율로 강조 하고 있다 (악보 6).

<악보 6> mm.63-71

pp

C: i

Mm.77-80은 경과구에서 사용한 모티브③, ⑥를 I -V로 반복하여 진행하다가 mm.81-90에서 제 1주제의 모티브①a가 변형된 음형으로 나타난 후 모티브③가 V-I를 반복하면서 종결부를 마감한다(악보 7).

<악보 7> mm.77-90

The musical score for mm. 77-90 is presented in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mm. 77-80) features a piano part with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The treble clef part contains a melodic line with a 5/2 interval marked above it, and a 3/4 interval marked above it. The bass clef part contains a bass line. The chord progression for the first system is I V I V I V I. The second system (mm. 81-90) features a piano part with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The treble clef part contains a melodic line with a 4/7 interval marked above it. The bass clef part contains a bass line. The chord progression for the second system is I V I V I a; v. The third system (mm. 91-90) features a piano part with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The treble clef part contains a melodic line with a 4/7 interval marked above it. The bass clef part contains a bass line. The chord progression for the third system is I V I V I a; v.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pp*, *f*, *p*, *pp*, and *dimin.*. The score also includes annotations such as ③, ⑥, ①a의 변형, and ③.

(2) 발 전 부(mm.91-150)

발전부에서도 슈베르트 특유의 작곡기법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특히 고전주의 소나타의 발전부에서 보여지는 주제의 동기적인 발전기법 대신 제시부에서 나타난 모티브를 연속적으로 전조시키는 방법인 메타모르포제(Metamorphose)¹⁵⁾가 나타나고 있다.¹⁶⁾

15) 메타모르포제 (Metamorphose),는 ‘변형’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어, 주제나 악구가 자유롭게 변화하면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으로는 변주와 비슷하다. 주제의

제 1부는 mm.91-104로 모티브①의 선율을 주제로 삼아 E음을 중심으로 악상을 대비하면서 (mf - pp) 옥타브 반복시킨다 (악보 8).

<악보 8> mm.96-104

Metamorphose

제 2부는 mm.105-119로 하성부가 지속음으로 처리되면서 반주 부분이 먼저 D Minor로 나타나고, 모티브①의 선율과 아르페지오가 반복되면서 상성부를 강조한다. M.119에서는 m.117의 트릴대신 아르페지오가 사용되면서 제 3부로 연결시킨다(악보 9).

성격적 변화가 표제와 결부되어 음악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심성태, 「음악용어사전」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8) p.123.

16) 석경은, "F. Schubert의 Piano Sonata a minor op.42,D.845의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p.19.

<악보 9> mm.105-119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piano, spanning measures 105 to 119. The score is written in treble and bass clefs. It includes several markings and annotations:

- Measure 105:** Starts with a circled 'a' above the staff, indicating a motif. The dynamic marking *ppp* is present.
- Measures 106-108:** A bracket labeled '아르페지오' (arpeggio) covers these measures. Fingerings are indicated with numbers 1-5.
- Measure 109:** A bracket labeled '아르페지오' covers this measure. The dynamic marking *f* is present.
- Measures 110-113:** This section features tremolos (wavy lines) in the right hand and arpeggiated patterns in the left hand.
- Measures 114-117:** A bracket labeled '아르페지오' covers these measures. Fingerings are indicated with numbers 1-5.
- Measure 118:** A bracket labeled '아르페지오' covers this measure. The dynamic marking *f* is present.
- Measure 119:** The final measure of this section, showing a tremolo in the right hand.

제 3부의 시작인 mm.120-128에서는 제 2부에서 보여주었던 모티브①의 선율을 왼손에서 F Minor로 이어가며 상성부는 트레몰로 음형의 반주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악보 10).

<악보 10> mm.120-128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ree systems of music, likely for piano. The first system (mm. 120-122) features a treble clef staff with a 'legato' marking and a 'pp' (pianissimo) dynamic. The bass clef staff has a 'f' (forte) dynamic and includes a circled 'a' with a double bar line. The second system (mm. 123-124) continues the piece with similar notation and includes a circled '4'. The third system (mm. 125-126) shows further musical development with various fingering numbers and a circled 'V' at the end.

M.129에서부터 시작된 리듬 형태인 ♩ ♩ ♩는 cresc.와 C 지속음이 강조되면서 점차 ♩ ♩ ♩로 변모해간다. 이 지속음은 A[#]-B -C -C[#]의 반음계적 진행을 보인다. 또한 C[#]은 m.144에도 강조되고 m.145의 F Minor를 예비한다(악보 11).

<악보 11> mm.138-144

Mm.145-150는 ㉠모티브가 양손에서 캐논으로 진행하는데 m.144에 나온 왼손의 C#은 m.148의 D음으로, m.150의 E음으로 진행된다(악보 12).

<악보 12> mm.145-150

(3) 재 현 부(mm.151-246)

재현부에서는 제 1주제를 원형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제시한다.

우선 제시부의 옥타브 중복 방식이 아닌 캐논 형태로 제 1주제를 시작하였는데 슈베르트는 조성을 원조로 환원시켜 긴장감을 해결하는 전통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후악구에서 변화시킴으로써 발전부가 지속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제시부에서 제 1주제가 10마디로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16마디로 확대되고, 제 1주제의 확보부분은 14마디에서 20마디로 확대된다. 경과구는 마지막 마디를 제외하고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악보 13).

<악보 13> mm.151-157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151-157. It consists of two staves: a treble staff and a bass staff. The treble staff has a melodic line with a slur over measures 151-157. The bass staff has a similar melodic line, also with a slur over measures 151-157. The word "Canon" is written above the treble staff and below the bass staff.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ncludes fingering numbers (1, 2, 3, 4, 5) and a "a:" marking below the bass staff.

여기까지의 조성 변화를 보면 F[#] Minor(m.145) - A Minor(m.151) - B^b Minor(m.170)-C[#] Minor(m.174)이며, 재현부의 제 1주제는 A Minor로 그리고 제 2주제는 A Major로 이어진다. Mm.186-199까지는 경과구로 a minor로 진행을 하는데 I-V를 반복하면서 다시 C Major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mm.194-199에서는 A Major의 V7를 이끌기 위해 반음계적으로 진행을 한다(악보 14).

<악보 14> mm.194-199

반음계적 진행

C;
A;

제 2주제의 재현은 A Major에서 제시부의 소재로 시작하여 거의 같은 형태로 재현한다. 그러나 제시부에서 제 2주제의 뒤에 오는 종결부는 23마디로 다소 축소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뒤에 이어지는 코다와의 관계 때문이다(악보 15).

<악보 15> mm.200-207

제2주제재현 →

A;

(4) 코 다(mm.247-311)

코다는 64마디로 발전부가 55마디인 것에 비교하면 비교적 길다. M. 247부터 시작되는 코다는 변형 발전된 모티브 ㉑의 선율의 옥타브 중복으로 시작되며, 모티브 ㉒의 상성부 선율과 모티브 ㉓의 하성부 반주로 진행된다.

코다에서도 슈베르트가 즐겨 사용하는 옥타브 중복이 코다에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악보 16)

<악보 16> mm.247-257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wo systems of music, measures 247-257. The first system (measures 247-251) features a treble clef with a piano (*pp*) dynamic and a bass clef with a piano (*pp*) dynamic. A bracket above the first system is labeled '옥타브 중복' (Octava Duplication). The second system (measures 252-257) features a treble clef with a piano (*pp*) dynamic and a bass clef with a piano (*pp*) dynamic.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like *pp*, *cresc.*, and *rit.*

Mm.283-290에서부터는 F[#]음을 페달음으로 하여 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Mm.291-292의 F을 거쳐 m.293에서 E로 A Minor에서 딸림음을 준비하는데, 다이내믹도 f -cresc.를 거쳐 ff로 다시 가면서 짝 찬 화음으로 뒷받침하는 선율로 클라이막스를 고조시킨다. M.303부터는 옥타브 중복으로 주제적 선율을 진행하다가 m.310-311에서 V-I로 종지한다(악보 17).

2) 제 2악장 (C Major, 3/8박자, Andante poco mosso, 총 181마디)

D.845의 제 2악장은 슈베라트가 작곡한 소나타 중 유일한 변주곡 형식의 악장이다. 특히 작곡배경에서 인용한 쓴 편지에서 암시하듯이 이 곡은 그가 연주한 곡들 중에서도 매우 아름다운 제 2악장으로 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악장은 주제와 함께 4개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표 7).

<표 7> 제 2악장의 구조

형 식	마 디	조 성
주 제	1-32	C
제 1변주	33-52	C
제 2변주	53-76	C
제 1변주	77-101	c
제 3변주	102-125	A ^b
제 4변주	125-163	C
코 다	163-181	C

주제는 순환 2부 형식(rounded binary form)적인 | a a' ||: b a" :|| 의 구조를 갖는데 먼저 4 성부의 짜임새로 mm.1-8에서 소프라노 성부에서는 G 지속음이, 알토 성부에서는 주제 선율이 노래된다(a). 이어 mm.8-16에서는

주제 선율이 소프라노로 옮겨지게 되면서 성부가 서로 교차한다(a').
 Mm.16-24에서는 새로운 선율(b)이 나오고, 다시mm.24-32는 트릴과 32분
 음표가 첨가되면서 주제 선율이 나오게 된다 (a'') (악보 18).

<악보 18> mm.1-32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five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treble clef) and a piano accompaniment (grand staff).
 - System 1 (mm. 1-6): Piano part starts with a *pp* dynamic. A bracket labeled (a) spans the first six measures.
 - System 2 (mm. 7-13): Piano part includes a *m.s.* (mezzo-soprano) vocal line. A bracket labeled (a) spans measures 7-13.
 - System 3 (mm. 14-20): Piano part features a new melodic line. A bracket labeled (b) spans measures 14-20.
 - System 4 (mm. 21-27): Piano part includes a *cresc.* (crescendo) marking and a *pp* dynamic. A bracket labeled (a'') spans measures 21-27.
 - System 5 (mm. 28-32): Piano part features a *fp* (fortissimo) dynamic. A bracket labeled (a) spans measures 28-32.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slurs, ties, and fingerings.

Mm.32-52부터 제 1 변주가 시작되는데 베이스가 16분음표로 움직이기 시

작하며 C#음을 비화성음으로 사용하고 주제 선율은 다시 엘토와 소프라노 성부가 교차한다. Mm.41-52는 강박에 비화성음을 많이 사용하고, 감7화음을 사용한 화성 진행을 보인다(악보 19).

<악보 19> mm.31-52

The musical score for mm. 31-52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m. 31-40) features a piano (*p*) dynamic and includes a circled section labeled '비화성음' (non-harmonic tones). The second system (mm. 41-52) features a *pp* dynamic and includes a circled section labeled 'A'. Chord symbols $V \frac{6}{5} / II$, I, and VII/V are indicated below the notes. Fingerings and articulation marks are present throughout the score.

제 1변주는 mm.52-76 까지인데 32분음표로 리듬 분할이 이루어지며 장식음을 덧붙여서 벗어나 밝고 명랑한 움직임의 볼 수 있다. 제 1변주 역시 C Major이며 형식은 a-b-a'이다(악보 20).

<악보 20> mm.52-57

The musical score for mm. 52-57 is presented in a single system. It features a piano (*p*) dynamic in the first half and a mezzo-forte (*mf*) dynamic in the second half. The score includes various rhythmic patterns and fingerings. A chord symbol C:I is indicated below the notes.

제 3변주는 mm.77-101인데 유일한 단조(A Minor) 변주곡으로 장엄한 느낌을 준다. 여기서도 역시 G 지속음이 주제에서처럼 상성부와 하성부에 교차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6분음표를 중심으로 장식적 성격

의 부점을 사용하고 있다(악보 21).

<악보 21> mm.76-84

상성부선율

하성부선율

제 3변주에서 제 4변주로 가는 과정에서는 슈베르트 특유의 전조기법이 나타난다. Mm.95-101에서 보면 A Minor - A^bMajor로 가는 반음계적 전조를 사용하는 낭만적 조성어법을 보여준다(악보 22).

<악보 22> mm.94-101

decresc.

pp

dimin.

dolce

c;

v7 i

A;

제 4번주는 mm.102-125이며 상성부의 32분음표 여섯잇단음의 화려한 스케일 선율과 하성부의 부점리듬이 특징을 이룬다. 특히 소프라노의 선율은 비화성음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화성적 색채감을 더하였다(악보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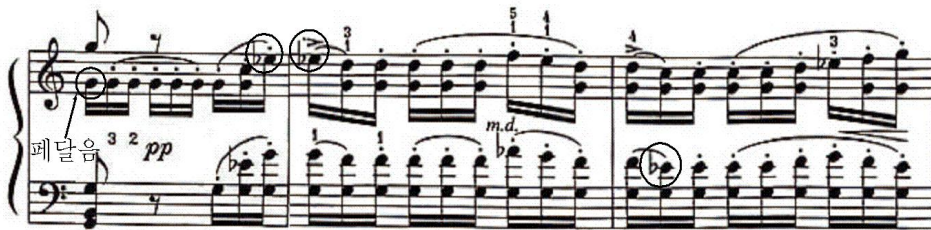
<악보 23> mm.102-107

Mm.127-131에서는 E-F-F[#]-G 선율의 반음계적 진행으로 음역을 확대하고 함께 전조하여 제 4번주를 으뜸조로 이끌어낸다(악보 24).

<악보 24> mm.127-131

제 5변주는 m.131에서 다시 C Major로 시작 되고 주제 부분의 G 지속음이 상성부의 엘토에 나타나 전체 변주곡 형식의 통일감을 가져온다. 4성부의 화성서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리듬의 특징은 슈베르트가 애용하는 패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셋잇단음표로 진행 되는 것이다. M.139부터는 C Major에 E^b음을 사용하여 A Minor로의 전조를 유도한다(악보 25).

<악보 25> mm.139-141



코다(mm.163-181)는 제 5변주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제 4변주에서 나오던 셋잇단음표 음형이 계속적으로 스타카토로 사용되는 가운데 G 지속음과 함께 C 지속음이 오른손에서 교대되며 베이스에서는 새로운 선율을 제시한다. M.174에서 왼손에서도 셋잇단음의 스타카토로 이어지며 계속 dim. 함으로써 pp로 조용히 끝을 맺는다(악보 26).

<악보 26> mm.172-181

169

C 페달음

G dim. 페달음

173

G 페달음

dim.

177

C 페달음

dim.

3) 제 3악장 (A Minor, 3/4 박자, Allegro vivace-Un poco piu lento, 총 174마디)

제 3악장은 스케르쪼와 트리오를 가진 복합 3부 형식이다(표 8).

<표 8> 제 3악장의 구조

형식	구 조	마 디	조 성
Scherzo	A	1-28	a
	B	28-92	C
	A'	92-126	a
Trio	A	127-150	F
	B	150-162	a
	A'	162-174	F
D.C Scherzo	A	1-28반복	a
	B	28-92반복	C
	A'	92-126반복	a

(1) 스케르쪼

스케르쪼의 A 부분은 mm.1-28이며 A Minor로 시작한다.

주제는 못갓춘마디로 시작하고 5마디의 구성이며 제 1악장의 제 1주제와 유사하다. 두 개의 짧은 음표 뒤에 하나의 긴 음표로 구성되어 있는 리듬 형태 (♩ ♩)가 특징을 이루며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악보 27).

<악보 28> mm.57-66

이명동음적 전조

M.92에서는 A Minor로 A'가 나온다. 그러나 mm.92-97은 다음 A Major를 이끌어 주는 암시적인 역할만 하다가 m.98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A'이 시작된다.

A Major로 시작된 A'에서는 더 이상 전조가 없으며 처음의 리듬 형태를 유지한 채로 pp -cresc.-ff 의 다이내믹으로 강하게 끝맺는다(악보 29).

<악보 29> mm.90-102

(2) 트리오

트리오에는 약간 템포를 늦춘 F Major의 소박한 무곡풍의 선율에 풍부한 화성이 특징이다. 처음의 A부분은 mm.127-130의 도입부를 지나 mm.131-138이 주제가 되며 다시 mm.138-146에서 주제를 옥타브 중복으로 반복한다. F음이 제 2악장의 변주곡에서처럼 지속음으로 나오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부분까지의 화성은 오직 I_4^6 화음으로만 구성되고 다음 mm.149-150에서 A Minor의 V- I 로 변화한다(악보 30).

<악보 30> mm.127-150

The musical score for the Trio section (mm. 127-150) is presented in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mm. 127-130) is marked "Trio Un poco più lento" and "pp mit Verschiebung". It features a melody in the right hand and a bass line in the left hand. The second system (mm. 131-138) shows the main theme with "옥타브중복" (octave doubling) in the right hand. The third system (mm. 139-150) includes "ritard." and "a tempo" markings, ending with a V-I cadence in A minor. Annotations include "주제" (Theme), "페달음" (Pedal point), and "a: IV I₄⁶ - V - I".

B부분에서는 조성이 다채롭게 변하는데 슈베르트가 자주 사용하는 3도 관계조에 의한 전조가 나타난다. M.150의 A Minor에서 m.152의 B[♭] Major로, m.154에서는 G Minor로, m.158에서는 A Minor로, 전조하며 m.162에서는 3도 관계조에 의한 전조 F Major로 다시 A'부분이 시작된다.

A'에서도 역시 F음이 지속음으로 지속되면서 기본 주제를 반복하다가 조용히 마무리 하면서 D.C Scherzo를 준비한다(악보 31).

<악보 31> mm.151-164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piano accompaniment. The first system (mm. 151-157) begins with a *mf* dynamic and features a sustained F note in the bass. The second system (mm. 158-165) starts with a *pp* dynamic and includes a *P.P* marking. The third system (mm. 166-164) concludes with a *dim* marking and a *Scherzo D.C.* instruction. Harmonic analysis is provided below the notes, including German Sixth chords (Ger.6) and various triads and dyads.

Harmonic analysis for the first system (mm. 151-157):
 a: Ger.6 I V7/IV B; II6 - I
 g: Ger.6 I I - 6 - 4 V7

Harmonic analysis for the second system (mm. 158-165):
 d: V7 I V
 F; P.P

Harmonic analysis for the third system (mm. 166-164):
 V7 Scherzo D.C.
 I

4) 제 4악장 (A Minor, 2/4박자, Allegro vivace, 총 549마디)

제 4악장은 총 549마디의 확대된 론도 형식으로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전곡에 8분음표가 지배적으로 사용되며, ABABACABABA의 구조를 보인다(표9).

<표 9> 제 4악장의 구조

구조	마디	구성
A	1-46	a
B	47-90	C
A'	91-122	a
B'	123-208	e
A	209-254	a
C	255-314	A
A''	315-358	d
B	359-396	C
A'	397-428	d
B'	429-501	a
A	502-549	d

(1) A (mm.1-46)

A Minor로 시작되는 8분음표의 주제 선율(m.1-9)은 m.46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요소를 제공한다 (악보 32).

<악보 32> mm.1-9

(2) B (mm.47-90)

M.46까지 A Minor로 진행되던 A부분은 완전중지를 한 후 C Major의 나란한조로 전조하면서 B부분이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는 ♩ 리듬 형태가 강조되어 A의 연속적인 8분음표 리듬과 대조를 이룬다(악보 33).17)

<악보 33> mm.45-64

17) 긴 음표 뒤에 짧은 음표 두개가 연결되는 리듬패턴은 여기에서 강약악의 다이내믹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음가의 위치를 전환함으로써 리듬에 변화를 주어 악장간의 유사성을 만들어 낸 슈베르트의 리듬 감각이 보인다.

또한 pp로 시작한 A와 달리 B부분은 sf를 자주 사용하여 다이내믹도 대조된다(악보 34).

<악보 34> mm.65-76

(3) A' (mm.91-122)

Mm. 91-122에서는 A Minor로 A부분이 축소, 재현된다.

(4) B' (mm.123-208)

B'는 E Minor 조성으로 시작하다가 m.135에서 It.6화음을 사용하여 E Major로 전조한다(악보 35).

<악보 35> mm.133-141

M.148부터는 E Major로 진행되다가 D[#]-G[#]-G[#]에서 E^b-A^b-A^b으로 이명동음에 의한 전조가 mm.154-155에 나타나면서 A Major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mm.163-164에도 소프라노의 선율이 D^b-A^b -D^b-D^b(m.163) 에서 C[#]-G[#]-C[#]-C[#]으로 이명동음으로 연결되면서 E Major로 전조한다(악보 36).

<악보 36> mm.150-165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50-165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50-155,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58-165. The key signature changes from E major to A major between measures 154 and 155.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trills (tr), triplets (3), and dynamics (f, sf, pp). Chord symbols E: and A: are indicated below the staves. The second system includes a 'dimin.' marking and a '2' below the bass staff.

(5) A (mm.209-254)

Mm.209-254에서는 A Minor로 처음 주제를 재현한다. Mm. 243-254에서는 A Minor 와 A Major를 교대하다가 A Major로 전조한다(악보 37).

<악보 37> mm. 241-254

a;
 A;
 a;
 A;
 a tempo

(6) C (mm.255-314)

C부분은 왼손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8분음표 음형이 특징이며 오른손은 순차적인 선율을 4분음표와 2분음표로 제시한다. M.259는 같은 으뜸조인 A Major로 연결된다(악보 38).

<악보 38> mm.255-262

255
 p
 259
 A;

(7) A'' (mm.315-358)

A''는 D Minor로 시작하며 조성은 m.323에서 A Minor로 진조한다. 또한

m.315는 2성부의 짜임새로 양성부의 선율이 교차하는 가운데 8분음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악보 39).

<악보 39> mm.315-323



(8) B (mm.359-396)

Mm.359-396에서는 처음의 B부분을 그대로 재현한다. C Major(mm.359-362) - A Minor(mm.363-366) - D Minor(m.387)의 조성 변화를 보이며, 스타카토와 레가토에 의한 선율도 서로 교대되는 경과구 역할을 하고, m.396에 이르러 D Minor로 연결된다(악보 40).

<악보 40> mm.383-396



(9) A' (mm.397-428)

M.397에서는 D Minor로 A주제를 축소하여 진행하는데 여기에서는 mm.413-428에서 나타나는 cresc.- f - ff 의 다이내믹 변화가 긴장감을 유발한다.

(10) B' (mm.429-501)

Mm. 429-501에서는 B'가 a minor로 시작한다. 또한 M.443에서 A Major로, m.457에서는 F# Major로 전조된다. Mm.462-475는 확대된 삼입구로 다양한 화성적 변화를 가진 경과구를 포함하고 있다.

B'부분의 특징으로는 m.461에 나타나는 1마디의 갑작스러운 휴지부를 들 수 있고, m.460의 F# Major의 G#-C#-C#음이 m.462에서 D^bMajor의 A^b-D^b-D^b음으로 이명동음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mm.470-471에서도 이명동음적 진행을 볼 수 있다.(악보 41).

<악보 41> mm.457-475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piano, covering measures 457 to 475. The score is written in a 2/4 time signature. It features a treble and bass clef. The music is characterized by complex harmonic structures and dynamic markings. Key features include:

- Measures 457-461: Marked with *ff* (fortissimo) and *sf* (sforzando). A circled measure at 461 is labeled "휴지부" (breath mark).
- Measure 462: A circled measure showing a chromatic shift from F# Major to D^b Major.
- Measures 463-475: Marked with *p* (piano) and *cresc.* (crescendo). A *dimin.* (diminuendo) marking is present in measure 467.
- Measures 470-471: Show chromatic shifts in the bass line.

특히 mm.488-496에서 반복된 *f*와 *sf*의 악상은 절정적인 분위기와 긴장감을 유도한다 (악보 42).

<악보 42> mm.485-499

(11)코 다 (mm.502-549)

M.501에 표기된 *accelerando*의 지시를 통해 코다를 급작스럽게 시작하려는 슈베르트의 의도를 보여준다. 특히 mm.524-526에서 제 1악장 코다의 마지막 부분(mm.297-230)을 재사용함으로써 순환 형식의 시도를 보이는 점이 중요하다.

m.542 부터는 *dcresc.*로 3도씩 하강하며 한마디 휴지부 뒤에 짙은 *ff* 화음을 교대하며 정격중지로 전체를 마무리 한다(악보 43-1, 2).

<악보 43-1> ① 제 1악장(mm.297-299)

② 제 2악장(mm.524-526)

<악보 43-2> mm.532-549

Ⅲ. 결 론

슈베르트는 고전주의 전통 위에서 낭만주의 기법을 조화시켜 독자적인 양식을 수립한 낭만주의 초기의 작곡가로서의 피아노 소나타들을 통하여 고전주의 형식과 낭만적인 어법의 결합을 잘 드러낸다.

그의 짧은 생애동안 작곡된 20여곡의 피아노 소나타들은 양식적 변화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중기에 해당하는 <피아노 소나타 A Minor, D.845>를 분석, 연구해 보았다.

이 곡은 4악장구성으로 구성된 순환적 ‘소나타 형식’을 지녔는데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 제 2악장은 그의 전 소나타 중에서 유일한 변주곡 형식, 제 3악장은 스케르쪼, 그리고 제 4악장은 확대된 론도 형식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라 나타난 슈베르트의 주요 음악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제적 소재를 되풀이하여 사용함으로써 악장내의 여러 부분들을 연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순환적기법이 특징이다. 즉, 제 1주제의 주요 동기가 제 2주제, 경과구, 코다 등 주요부의 음악적 소재로 계속 활용되고, 제 1악장 코다의 마지막 부분을 제 4악장의 마지막 부분에 재사용하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1822년의 <방랑자 환상곡(Wanderer-Fantasie), Op.15 D.760 >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며 후배 작곡가들에 의해 보다 체계적인 순환 기법으로 발전한다.

리듬은 주제의 모티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특히 한 마디의 리듬 형태를 한 악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는 특징이 있고, 선율은 호흡이

매우 길고 순차적인 진행을 하거나 반음계적 진행, 옥타브의 반복, 아르페지오나 유니슨 등을 사용하여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선율이 유도할 수 있는 리듬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전조의 방법에서는 정통적인 관계 장조로의 전조와 더불어 이명동음적 전조, 3도 관계로의 전조를 자주 사용하였으며, 같은 으뜸음을 가진 장조와 단조를 섞어 씌우므로서 화성적·조성적 색채감이 증대되었다.

또한 비화성음과 반음계적 화성을 비롯하여 증 6화음, 감 7화음, 이명동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색채감을 표현하였고 갑작스러운 다이내믹의 변화와 휴지 등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시켰다.

이와 같이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 Minor, D.845>는 고전주의 형식을 따르면서 순환기법적 구성, 화성, 다양한 리듬 형태, 예측하지 못할 조바꿈과 색채적 화성, 자유로운 선율 전개 방식 등으로 독특한 낭만적 음악 어법을 구사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경임. 「피아노 소나타」.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5.
- 백병동. 「화성악」 서울: 수문당, 1988.
- 세광음악출판사편. 「명곡해설전집: 제16권」 서울:세광출판사, 1986.
- 심성태. 「음악용어사전」 서울:현대음악출판사, 1998.
- 음악대사전 편찬위원회편. 「음악대사전」 서울:세광출판사, 1984.
- 음악지우사편. 「명곡해설라이브러리: 슈베르트」 서울:도서출판 음악세계, 2001.
- Forney, Kristine & Joseph Machlis. 신금선 역. 「음악의즐거움(상)」.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97.
- Grout, Donald. J & Claude Palisca. 세광출판사편집부. 「서양음악사: 개정4판」 서울:세광출판사, 2000.
- Gillespie, John. 김경임 역. 「피아노 음악」.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0.
- F. E, Kirby. 김혜선 역. 「건반음악의 역사」.서울;도서출판 다리. 1997..
- Michels, U. 홍정수:조선우편저. 「음악은이」. 서울:세광출판사, 1992.
- Miller, H. M. 「서양음악사」. 서울: 음악춘추사, 1997.
- Newman, W. S. *The Sonata Since Beethoven*, New York : W. W Norton & Co. Inc., 1983.
- Sadie, Stanley,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London : Macmilan Publishers, 2001.
- 김지혜. “L.V.Beehtoven Piano Sonata Op.109의 낭만적 특징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혜령. “F. Schubert 피아노 소나타 C 단조 D.958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

- 사학위논문, 1999.
- 박미연. “베토벤 후기 피아노 소나타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경향.”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희암. “F. Schubert 피아노 소나타 A major D. 959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석경은. “F. Schubert의 Piano Sonata a minor op.42,D.845의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오정희. “F. Schubert의 Piano Sonata A Major D.6644 연구 분석.”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윤영선. “F. Schubert Piano Sonata 의 고전성과 낭만성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병미. “낭만파 피아노 Fantasia 의 특성과 안곡해석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조성경. “F. Schubert Piano Sonata a minor Op.53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조순례. “F. Schubert Piano Sonata a minor Op.143 D.784에 대한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Schubert, Franz. 「슈베르트 소나타 I」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7.

ABSTRACT

*A Study on Piano Sonata A Minor, Op. 42, D. 845 of
Schubert*

Chea, jeng-a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Franz Peter Schubert(1797-1828) left important works over the whole of vocal music and instrumental music during short lifetime as an early romantic composer. He is well known as Lied to amount to 600 musics, but his piano works occupy very important position from the viewpoint of music history also.

Out of piano works of Schubert, especially, piano sonata is the domain to suggest the aspect of serious and structural Schubert. Totally 20 sonatas or so. including completed sonata show romantic mood by showing the change of harmony diversely with free melody mood and continuous modulation etc. in the unfolding of movement, while they maintain the frame of sonata form of classical period.

In this thesis, this researcher tries to consider the feature of Schubert

piano concretely by analyzing Piano Sonata Minor Op.42 D.845 of Schubert. This work was composed in 1825, and it was published in the name of Premiere Grand Sonata as one of 3 sonatas published during the lifetime of Schubert.

This sonata written with the sonata form of the 1st movement, the variation form of the 2nd movement, the scherzo of the 3rd movement, and the expanded rondo form of the 4th movement is showing romantic tendency as a work which performed diverse trials from the viewpoint of scale and form.

The author examined 20 piano sonatas or so. including unfinished symphony by classifying them into early stage, middle stage and last period for the whole understanding for the piano sonata of Schubert. In addition, in main discourse,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composition background of piano sonata A minor op.42 D.845 and tried to analyze form, structure, rhythm, and tonality etc. which appear in each movement. Then, this researcher tried to establish the significance of musical history that the sonata of Schubert has through this study.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위하여 저를 잊지 않으시고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해주신 이영민 교수님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논제를 시작으로 참고문헌과 자료들을 모아 확인하여 주시고, 작은 부분 하나에도 세심하게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학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랜 기간동안 항상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존경하는 채준자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논문의 형식과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충고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구본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서, 그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임자향 교수님, 박미애 교수님, 홍영주 교수님, 박승민 교수님등 여러 피아노 전공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던 가족들과 두 딸 주영이와 하영이 그리고 동기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논문 작성에 있어 악보 정리 및 편집을 위해 밤늦게까지 수고한 남편에게도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저의 음악공부를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너무나 많이 고생하신 사랑하는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04년 1월 12일 채